

Bruce Waltke 박사, 시편, 강의 8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8회기 찬송가, 신학, 헤세드, 창조, 왕권,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라는 시편의 형식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티프와 그 모티프가 칭찬에 대한 입문 요청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불을 붙이기 위해 말하는 성냥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바로 불을 지피는 연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티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라는 부르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적인 분위기 전체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적합하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제안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완전 딱맞고 적절해요.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을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는 것은 음치와 같습니다. 나는 루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과 정치 합창단 등입니다. 그 전에는 음악과 박수, 노래로 그 열정을 반성했는데 미지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퍼포먼스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강조한 요점 중 하나는 그분이 죄인들의 칭찬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신문에서 본 것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찬양의 원인을 찾다가 찬양의 신학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학을 배우는 독특한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송영의 맥락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현자를 통해서도 아닌, 경건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찬양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속성에 대해 논의했고 거기서부터 그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없는 속성, 공유할 수 없는 속성, 공유 가능한 속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그분의 전달 불가능한 속성에는 무엇보다도 그의 민첩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다. 그분은 누구에게서도 나오시지 않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파생된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전달 가능한 속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Asity로서 나는 뭔가가 뭔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레인과 저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는 등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려하리라.

그것은 우리 아침 예배의 일부입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저번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유물론자와는 대조적으로 신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물질 자체는 매우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자를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매우 정확한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편 8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무신론자가 말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논리적이고 뛰어난 정신은 그것이 작동하는 법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다면, 지적 존재가 없다면 이러한 법칙, 이러한 지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진술이다.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물이 그분의 영원한 본성과 영원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면 눈이 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서 물러가실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당신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본래의 간음자와 동성애자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당신의 죄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시고 우리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65페이지에서 그의 전염 가능한 속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금송아지와 관련하여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풀을 먹는 신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황소 배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와 함께 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속성이 또한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음과 변함없는 사랑과 전적인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들은 희생 제도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공하여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음을 범하거나, 인생에서 행한 모든 일이나, 인생에서 지은 죄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라도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66페이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은 그분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 가운데 거룩함과 권능과 지혜와 은혜가 그와 같은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있는데,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그는 신들의 왕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며, 신 중의 신이시며,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무엇을 만들까요? 신 중에 너와 같은 이가 그 사람이라 하는데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그가 다른 신들이 있다고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10계명의 첫 계명, 내가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유일신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비교 종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시점에서 유일신교의 지점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이 신들은 모든 자연, 동물, 나무 등에 존재한다는 애니미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격과 바람의 신, 비의 신, 수중의 신, 폭풍의 신 등이 더욱 추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다신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신교 뒤에 있는 자연과 인격적 존재의 혼합입니다. 다음 단계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한 신만을 숭배하는 유일신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암탉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나이지만 다른 신도 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다른 모든 신들을 무시하고 이사야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신은 없고 결국 유일신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의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진술은 모세가 유일신교에 속했던 종교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실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신학적 진술과 종교적 명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의 신학적 진술은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현실은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신은 아니지만 종교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등글게 만듭니다. 종소리가 있고 캘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매일 신을 만들고 있으며, 예배할 다른 무엇인가를

그에게서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신들을 승배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진술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지식이 있는 우리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되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적 진술과 종교적 명령을 구별하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나 고대인들이 숭배했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65번에서 I Am의 고귀한 거처와 천국에서의 그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두 비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자궁 속의 빛, 공기, 창조의 아름다움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알려진 것은 물과 어둠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나요? 은유를 사용해야합니다. 뭔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궁에 아주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일이지만 어떻게든 은유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as i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이 우주를 삼자체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위로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땅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보았던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타자성과 모든 것에 대한 통치, 모든 것에 대한 전지하심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주론에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밀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거기 바위 위에 올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는 로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성경적 세계 내에서 비유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밀어붙였음에 틀림없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좋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가장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의 보좌를 하늘에 굳게 세우고 그의 위엄이 만물을 다스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통치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전지하신 분의 억압적인 이미지인 그분은 온 세상이 그분의 발 앞에 놓여 있는 하늘 보좌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는 응시하는 눈으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전지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경적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표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자연의 창조자이자 보존자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빼면 그 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시편 104편, 모든 피조물이 이 기한에 양식을 주시도록 주를 앙망하나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모아 놓습니다. 손을 펼치면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것들이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세상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 바로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Gunkel이 말했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우리의 보존 개념에 속하든 실제 창조에 속하든, 일반적으로 고대인의 세계 관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이벤트는 새로운 창조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십니다. 그는 새벽에 별들을 배열한다.

그는 별의 이름을 눈과 얼음으로 부르며 특히 비는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그분은 땅에 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몰려드는 홍수의 포효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요약하면, 그분은 요구되지 않은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창조물 전체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그의 창조의 표현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옷입니다. 구름과 그의 수레와 바람과 불꽃이며 그의 사자들이니라.

그분은 땅의 높은 곳으로 행진하십니다. 지진이 난다면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연기가 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세상에 생명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생명을 지키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천구의 조화를 하늘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물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있는 자료를 당신에게 줍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의 행위의 양면을 뚜렷한 대조로 묘사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는 스울로 내려가서 인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도 만드십니다. 그분은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요점은 또한 전달 불가능한 속성과 전달 가능한 속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면 그는 전제군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독재자입니다. 말하자면 자비로운 왕입니다. 반면에, 만일 그에게 긍휼과 은혜라는 전달 가능한 속성만 갖고 있다면, 그것들은 아무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은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이것들은 두 가지 주요 속성입니다. 사랑 하나는 구약과 시편에서 찬양되는 주요 속성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HESE D)입니다. 첫 글자에만 약간의 마찰음을 넣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첫해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어느 날, H와 H를 구별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출석을 부르고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를 13단어 방식으로 번역합니다.

그 말에는 관계가 수반됩니다.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한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약한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은 사랑, 친절, 그것이 무엇이든, 강압이나 자기 동기 부여가 아니라, 아무것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랑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한동안 이집트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집에 가족이 없어요. 그들은 방금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가족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에게 자기가 죽으면 이 헤세를 나에게 보여 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뼈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 세겜으로 메고 가서 내 아버지의 땅에 장사하소서. 그는 자신을 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는 Ruth입니다. 그리고 롯기는 헤세드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인인 Machlan에게 전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는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자녀 없이 죽습니다.

그는 번영이나 사회적 기억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롯은 그녀에게 말했고 나오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라.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갔고 결국 이 위대한 사람 보아스가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침대 장면에서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것은 그녀의 헤세 였지만 당신은 남편의 가족에게 충실한 것을 두 번째로 헤세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섹스를 하러 간 게 아니군요, 젊은이들. 당신은 가족에게 충실했고 가족 구속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 고인에 대한 두 번째 충성심은 첫 번째 헤세드보다 더 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막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위대한 친절 행위로 인해 보아스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죽은 남편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당신이 전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이삭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씨가 땅을 축복할 것이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약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어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유지하실 것이라는 보장이며, 그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Gunkel의 많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어려운 일에 들어갑니다.

68페이지에서는 창조 시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고대 근동 신화를 사용하는 것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교 신화의 용어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의 주요 신화는 에누마 엘리 시(Enuma elish) 신이 에누마 엘리시(Enuma elish) 일 때 에누마 엘리시(Enuma elish)라고 불렸습니다. 창조 이야기에는 물로 대표되는 괴물인 티아마트(Tiamat)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Marduk은 위대한 영웅이었고 그는 괴물을 학살했습니다.

그 괴물로부터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신화입니다. 그것은 카오스 캠프(Chaos Kampf), 즉 카오스입니다.

영웅신과 혼돈을 상징하는 이 괴물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신은 혼돈을 물리치고 혼돈 속에서 우주를 창조했다. 그것은 모두 성격의 신화에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창세기 1장은 땅이 어둠과 물 속에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혼돈이다.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Tiamat, Teh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Tehom의 깊이 는 Tiamat과 동일하지만 완전히 비신화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테홈(Tehom)이 있고, 깊이가 있고, 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이기셨으며 혼돈의 바다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을 이기시고 빛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진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인들은 창세기 1장의 산문처럼 그것을 묘사하지 않고 시인이며 의인화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혼돈의 괴물을 이기신 분이라는 위대함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교 신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밀턴과 같거나 말하자면 실낙원과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제우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옵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목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히브리 시인들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이교 신화를 사용하는 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일종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은 Marduk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을 이기시고 변화시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많은 학자들이 이교 신화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신 방식을 설명합니다.

Theomar 와 같은 이교도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가리트어 본문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균동 지역과 그들의 모든 신화 전반에 걸쳐 발견됩니다.

혼란스러운 전투입니다. 그리고 우가릿 본문에서 창조된 하나님은 바알이다. 어제 말했듯이 그는 폭풍과 번개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세트의 신화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는 바다인 얌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상징인 바다와 싸우고 있는 번개와 비와 생명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당신의 농작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농작물을 주는 비와 함께 바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알과 바다 사이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신화는 죽음에 반대하는 바알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아니면 다른 혼돈의 신들은 라합이나 리바이어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라합에 관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합이 누구인지, 리워야단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신들입니다. 이러한 신화적 환상은 시에서만 나타나며 시에 생생함과 색채를 더해줍니다. 그들은 또한 이교 신들에 대한 논쟁의 역할도 합니다.

이교도 신들에게 부여된 숭고함은 사실상 I Am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74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신 분은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보세요, 땅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당신은 물 속의 괴물, 그 혼란스러운 세력의 머리를 부러 뜨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혼란스러운 세력에 대한 이러한 신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숴서 사막의 생물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샘과 시냇물을 열어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말랐습니다.

낮은 당신의 것이고 밤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해와 달을 세우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모두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혼돈의 세력을 물리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살아있는 언어로 담겨 있지만 그것은 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라합과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이는 혼돈의 세력을 극복하는 그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89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며, 당신의 신실하심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잔잔케 하십니다.

바다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바다 속의 바다를 어떤 낭만적인 방식으로 풍경화가를 거쳐 찾아오지도 않았고, 나를 다시 하늘 위의 외로운 바다로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큰 배와 그녀를 조종할 별을 주세요.

그들은 바다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었고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삶에 반대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강한 팔로 라합을 스페인 사람처럼 쳐부수시고, 당신의 적들을 훑으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는 또 다른 비교를 하자면, 이것은 우가릿 본문의 첫 번째 줄에 대한 비교입니다. 일곱 머리 중 강력한 자, 구부러진 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그처럼 강하고 크고 강력한 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사악한 뱀 리워야단, 심지어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이 바다의 괴물을 죽인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밀턴이나 영국 시인이 그리스 신화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 시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 이교 신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 이교 신화를 언급합니다.

이런 어려운 자료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Harvard의 Leviathan에 따르면 바다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모두에서 질서의 큰 적이었습니다.

패배, 길들이기, 극복. 그것이 문자 그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심연과 바다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의 패배는 창조의 본질적인 요소였으며, 승리한 하나님의 왕권과 자신의 궁전이나 성전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 신화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표되어 바다를 정복한 후에, 그 승리하신 하나님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궁전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궁전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왕권, 성전은 불가분의 삼위일체를 형성합니다.

바다를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와 왕권과 성전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삼위일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배경 없이는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기신 것은 그가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굳건하고 안전하게 세워졌습니다.

즉, 여호와는 전능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견고히 하고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왕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왕좌는 오래 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영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협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주님, 바다가 솟아올랐습니다.

바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다가 두근거리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큰 물의 천둥소리보다 크시고 바다를 가르는 자보다 크시니 위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크시도다

그분은 모든 위협을 이기시고 능력을 입으셨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굳건히 세우소서.

거룩함은 끝없는 날 동안 당신의 집을 장식합니다. 거기에는 창조와 왕권과 성전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시편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아마도 바알에 대한 찬송을 채택하고 각색한 것 같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다. 시편, 다윗의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거룩함의 광채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주님의 음성은 천둥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물 위에 있습니다. 지중해를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천둥을 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큰 물 위에 천둥을 치시느니라. 주님의 음성은 강력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위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둥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느니라.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셨느니라 그러나 폭풍이 어디로 가는지 주목하십시오. 레바논의 나라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 숭배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는 지중해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천둥과 번쩍이는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시리아 사람을 들소처럼 뛰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번개처럼 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카디쉬 광야를 진동시키시니라. 즉, 이제 폭풍은 지중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폭풍은 이제 레바논 산맥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교만하고 힘센 백향목들을 쳐부수십니다. 백향목은 강력하고 장엄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폭풍으로 부수시고, 완전히 산산이 부숴 버리실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폭풍은 잣아들고 있습니다. 카디시는 반레바논 산맥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카디쉬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참나무를 뒤틀고 숲을 헐벗게 하며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을 부르짖느니라. 주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왕으로 즉위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 나라의 중심부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편 강좌를 들으면서 이 어려운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7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텍스트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출애굽과 땅의 정복과 정착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unkel은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역사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문학에는 대응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Ugarit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교 문헌에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전체 생각은 매년 지구를 재창조하는 것이지만 역사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절정도 없고, 악에 대한 의의 승리도 없습니다.

역사에는 형이상학적인 요점도 없고 그 뒤에 있는 현실도 없습니다. 성경이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의가 승리할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교 신화를 사용하는 외부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앙리 프랑크포르트(Henri Frankfort)가 말했듯이, 이교 문헌과 함께 성경 신학을 연결하는 탯줄은 없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신학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8회기 찬송가, 신학, 헤세드, 창조, 왕권, 성전입니다.